



With **MUSINSA USED**



패스트패션의 주축인 2030세대. 그들은 계속 옷을 쉽게 사고, 버리고 있었습니다

패스트패션이란?

유행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가 바로바로
반영되어 빨리 바뀌는 패션

출처: 국립국어원

의류부문 예상 탄소배출량

2030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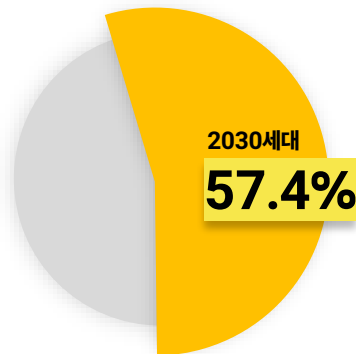
전체 탄소배출량의

49%

출처: 유행 따라 값싼 옷, 환경엔 값비싼 대가... 패스트패션의 이면 - 해럴드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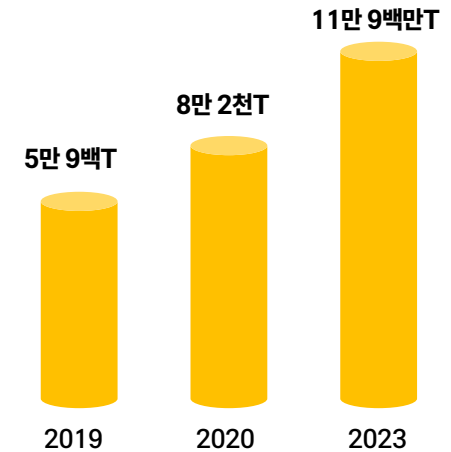
쉬인 이용자 중 2030비율

* 쉬인: 최근 패스트패션을 이끄는 초저가 패션 유통 회사



출처: "코트가 2만원? 당장 깎다" 2030 몰리더니... 일리도 없었다 - 환경

의류 폐기물 통계



출처: 패스트패션 트렌드에 쏟아지는 폐의류 - 환경부, 재활용 시스템 정비 나선다는데 - 매일 경제
1년 동안 버려지는 옷 11만톤, 환경도 살리고 내 주머니도 보호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 한국 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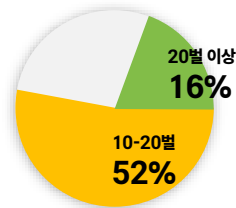
이렇게 쉽게 버려지는 옷들은 많은 양의 탄소를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겨울 코트의 탄소발자국이
일회용 종이컵 912개의 탄소발자국과 맞먹는다



버려진 옷의 61%가 재활용 대신 국외로 버려져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대학생 중 1년에 10-20벌의 의류를 구매하는 비율은
52%, 20벌 이상은 16%



대학생 중 73%가
옷을 3년 미만으로 입고 버린다고 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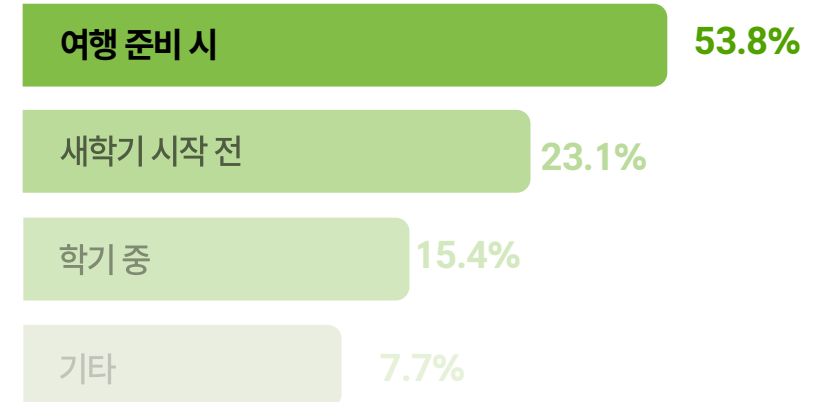
이들은 특히 **여행을 위해 평소 입지 않을 새 옷을 과하게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시기에 맞추어 증가 중인 의류 구매율



Q. 평소 옷을 언제 구매하시나요?

출처: 자체 설문사 / N=104



그렇다면 2030세대는 왜 여행을 앞두고 새 옷을 구매했을까요?

Q. 왜 여행을 앞두고 옷을 구매하시나요?

옷장에 있는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행지에서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사려고

새로운 옷을 입고 싶어서

여행지에서 기존의 옷이 아닌,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입고 싶어서

여행에서 입어야 하는 분위기랑
달라서

여행 가서 **예쁜 사진** 많이
찍고 싶어서

평소보다 더 **예쁜** 옷을 입고 싶어서

기존에 고수하던 스타일이 아닌,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니즈가 대다수**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된 여행을 위해,
‘내가 입어보지 못한 옷’을 입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여행을 갈 때마다 구매하는 '새 옷'의 의미는 말 그대로 '새' 옷이 아닌,
'평소에 입지 못했던 옷'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새⁶

발음 [새 6]

「관형사」

- 1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
- 2 사용하거나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새⁶

발음 [새 6]

「관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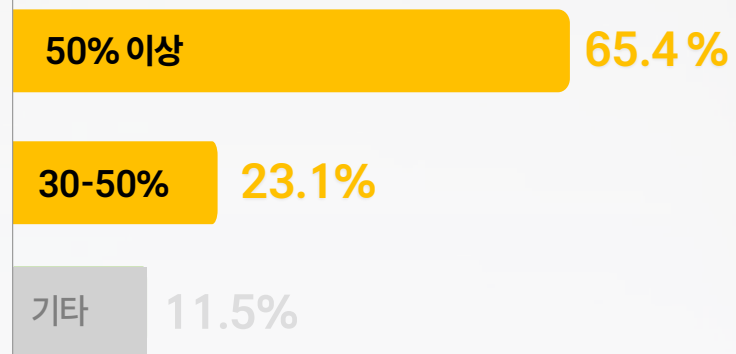
- 1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
- 2 사용하거나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하지만 이런 새 옷들은 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할 뿐만 아니라
여행 중, 그리고 여행 후에 '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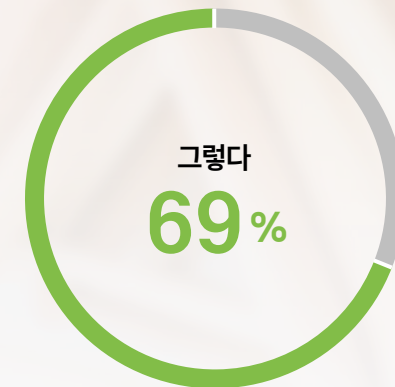
Q. 가방에서 옷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시나요?

출처:FGI
N=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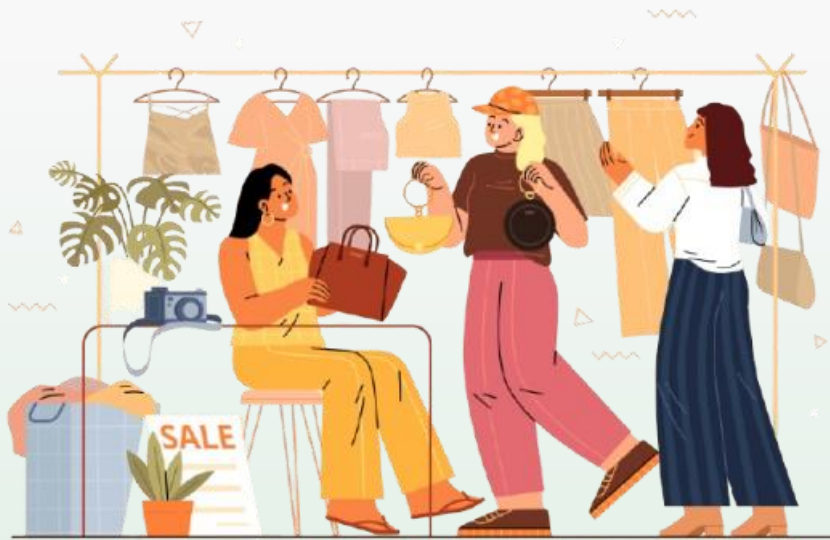


Q. 옷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출처:FGI
N=104



새로운 경험을 원하지만 그 니즈가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
그렇다면 새 옷 구매를 줄이면서, 여행의 즐거움은 유지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새로운 경험을 원하지만 그 니즈가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
그렇다면 새 옷 구매를 줄이면서, 여행의 즐거움은 유지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이젠

‘리커머스’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는 이들과



그 경험 이후로 더 이상 입지 않는 물건으로 인해 곤란해하는 이들을

리커머스로 연결해 자원의 순환을 이끌어냅시다!



With **MUSINSA USED**





IDEA

Closer with your closet

: 여행으로 멀어지는 본래의 옷장을 대신해 여행지에서 보다 가까이 머무르는 당신의 옷장이 되겠습니다

중고 의류 거래 플랫폼 무신사 유즈드를 통한
나만의 여행을 위한 중고 옷 순환 시스템



트래블 클로젯 이용 방법 : 대여자 편

STEP 1. 로고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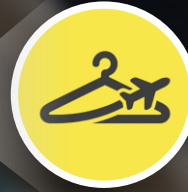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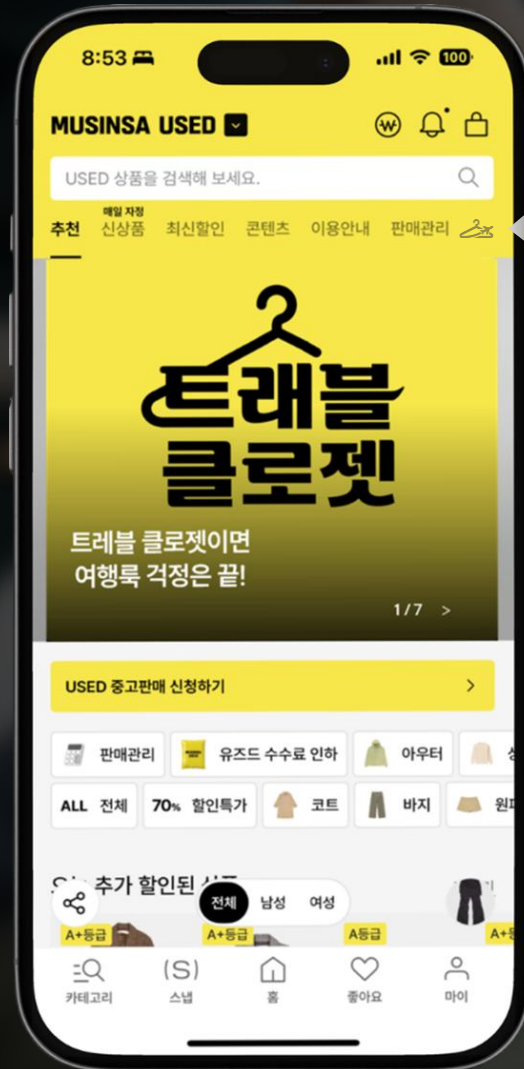
무신사 유즈드에 접속 후, 트래블 클로젯 이모티콘을 클릭하여 트래블 클로젯 접속.

STEP 2. 옷 선택

대여하길 원하는 옷을 선택 후 클릭

STEP 3. 픽업 옵션

마음에 드는 옷 선택 및 픽업 옵션 설정 (대여 기간, 픽업&반납 거점)



STEP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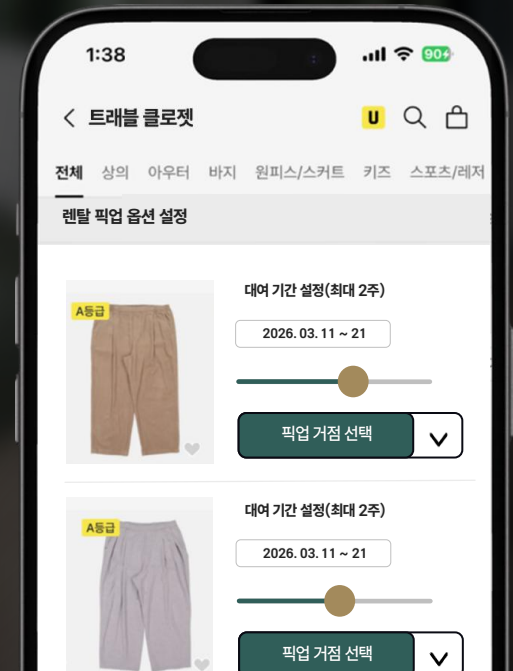
로고 클릭

STEP 02

옷 선택

STEP 03

픽업 옵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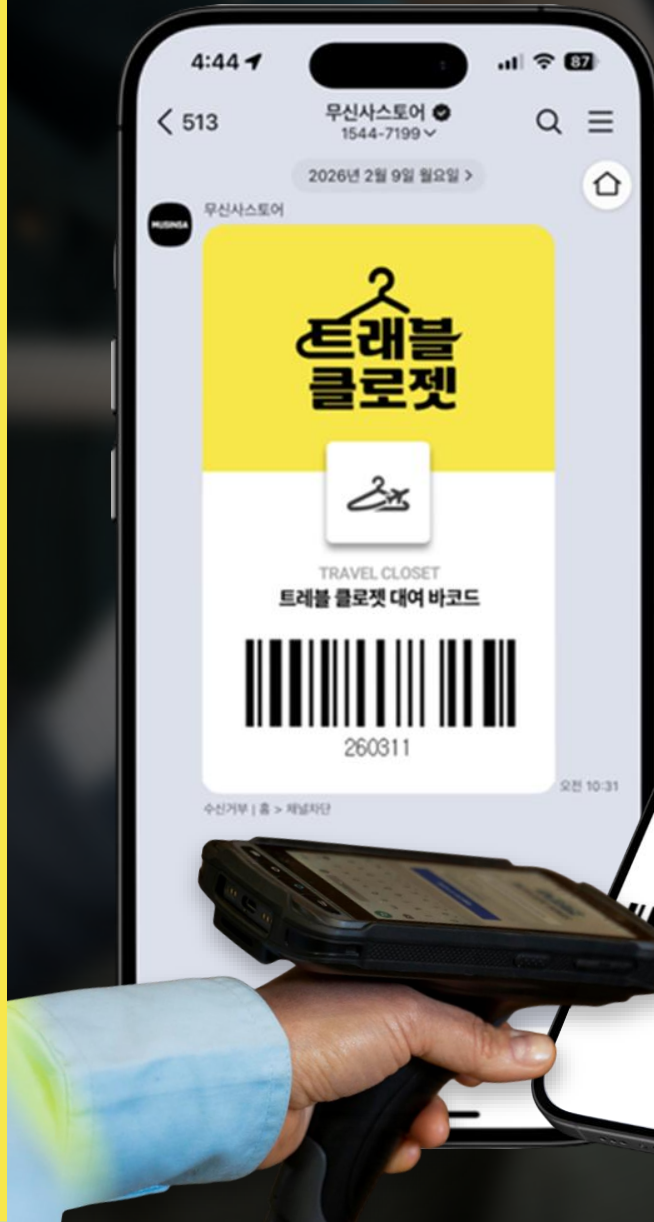


트레블 클로젯 이용 방법 : 대여자 편

STEP 4. QR 발송
결제 완료 후 카카오톡으로
QR 발송

STEP 5. QR 인식 및 픽업
픽업 당일 무신사 매장에서 인증

STEP 6. 착용 및 반납
픽업한 옷을 입은 뒤,
정해진 날 매장에 다시 반납



STEP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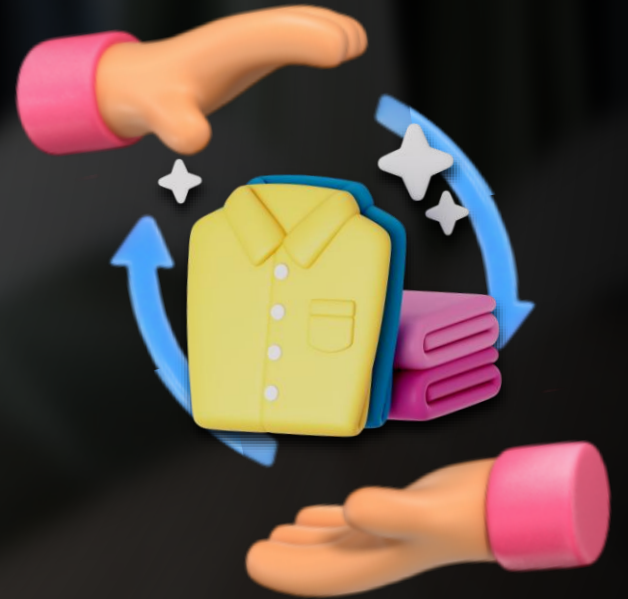
QR 발송

STEP 05

QR 인식 및 픽업

STEP 06

착용 및 반납





트래블 클로젯 이용 방법 : 판매자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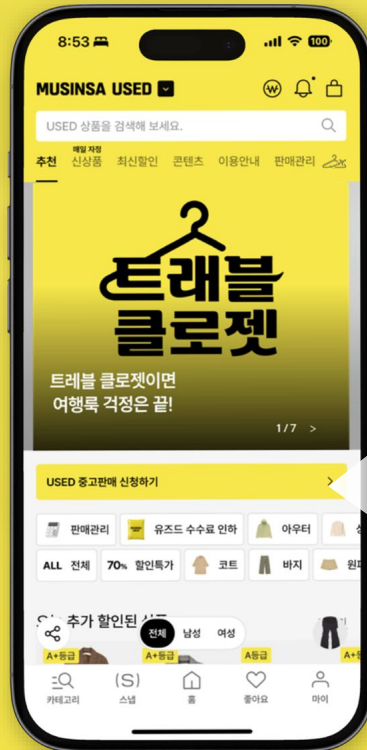
STEP 1. 무신사 유즈드 내 '트래블 클로젯' 아이콘 클릭

STEP 2. '중고 기부' 신청하기
기부할 옷의 사진 및 영상 촬영 후 검토 요청.

STEP 3. 상품 검수 및 등록
무신사 유즈드의 검토 후, 게시 허가를 받았다면 트래블 클로젯에 게시할 사진과 함께 소비자들을 위한 간단한 설명 첨부(계절 / 사이즈 / 착용감 등)

STEP 4. 대여 완료 시 정산 진행
가까운 트래블 클로젯 거점 선택 후 제품 발송.
(기존의 무신사 유즈드 실행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무신사 측에서 '유즈드 백' 발송)
•유즈드 백을 통해 제품을 받은 무신사 유즈드에서 상태 확인 및 세탁 후 기존에 판매자가 작성한 정보와 함께
•옷 게시(온라인).
•대여 완료 시 정산 진행.
(대여가 될 때마다 기부한 옷 값의 '7%'를 무신사 페이를 통해페이백 받음)

STEP 01
로고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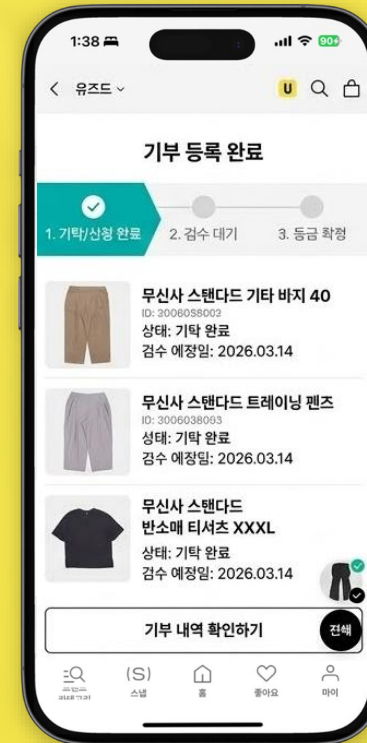
STEP 02

'중고 기부' 신청하기

USED 중고 기부 신청하기 >

STEP 03

상품 검수 및 등록



STEP 04

대여 완료 시 정산 진행





기획의도 & 기대효과

기획의도

2030세대가 패스트패션이 탄소중립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걸 몰라서 저가 의류를 소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2030세대가 패스트패션의 주축이 되었을까요?

저희는 이 결과가 경로 **의존성**과 **편리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싼 가격에 늘 새롭고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굳이 힘들게 찾지 않아도 보여주고, 알려주는 의류 플랫폼들. 하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경로를 벗어나고 더 탐색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섞이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2030세대가 불편함을 겪는 순간에 탄소중립을 위한 중고 옷이 해결책이 되어야 합니다.

2030세대가 패션 못지않게 사랑하는 '여행'. 여행을 위해 챙겨가는 옷들은 여행지에서 나를 표현할 수단이면서 동시에 귀찮은 짐이 됩니다. 이때, 그날의 여행 무드에 맞는 중고 옷을 손쉽게 빌리고 반환하기만 하면 된다면?

그래서, 저희는 옷 관리, '소유'라는 리스크에서 벗어나 원하는 옷을 그저 입기만 하면 되는 간편한 탄소중립 리커머스 의류 플랫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



2030세대 측면

온라인 구매의 단점, 직접 입어보고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구매한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옷장에서 자리를 차지하며 골치거리가 됩니다. 내 것이 되지만 이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소유의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트래블 클로젯을 사용하면 **소유의 리스크 없이 더 다양하고 새로운 옷을 손쉽게 더 싸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래블 클로젯 판매자 측면

중고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일시적 수익을 넘어, 자신이 게시한 옷을 사람들이 많이 빌릴 때마다 일정 수준의 개런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체계는 상태가 나쁜 옷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빌릴만한 좋은 품질과 상태의 옷들을 게시할 동기를 부여하며 추후, 플랫폼이 또 다른 형태의 헌 옷 수거함이 되는 것을 막고 점차 사람들이 많이 몰릴수록 더 좋은 품질과 다양한 스타일의 옷들이 게시될 수 있도록 이끕니다. 이러한 자체 검열 체계는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를 꼼꼼하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한몫해 판매자들이 파는 상품에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전이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측면

기존의 재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수출되었을 옷들이 재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했을 탄소가 감축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 옷이 수출·이동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의 한 의류 수거함에 넣은 스웨터의 경우 국내에서 수출업체를 거쳐 인천항으로 이동했고, 결국 인도의 파니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이 수송 과정에 0.15kgCO₂-eq/ea가 소요됐고 테이크아웃 종이컵 6개를 마시고 버릴 때와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이를 트래블 클로젯으로 순환시킬 수 있다면 대량의 탄소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효과



무신사(유즈드)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기존의 자사 중고플랫폼 무신사 유즈드와 협업. 전국에 있는 무신사 오프라인 매장에서 옷을 픽업하는 시스템을 통해 매장 방문자 수와 언급량을 높일 수 있고, 트래블 클로젯 배너 역시 무신사 유즈드 앱에 배치하여 앱 설치수, 일일 방문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래블 클로젯 사이트에서 본 중고 옷들을 구매하고 싶다면 무신사 유즈드에 게시된 비슷한 스타일의 중고 옷을 자동으로 추천해 새 옷 구매 대신 중고 옷 거래 역시 촉진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무신사 공식 홈페이지

정부 정책과의 기대효과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정책 방향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정부가 섬유패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지원에 18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최근 정책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로서,
정부 부처의 금전적인 지원과 협업을 기대하기
충분하다